

“군 사회복지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경화 ·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군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기사 : 장원중(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진 : 박용득(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난 7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군사회복지사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과 국방위 소속 황진하·송영선 의원, 군사회복지 연구 전문가들과 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 발제자는 박미은 교수(한남대 사회복지학)로 미8군에서도 6년동안 실무에서 Social Worker로 활동했고, 토론자는 송영선 국회의원, 이대식(2군사령부 의무과장), 오현숙(미 8군 사회복지사), 이홍윤(군사회복지사), 김수삼(한국사회복지협의

회 팀장)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공청회는 '군사회복지사 제도의 입법화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군 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역할,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 군사회복지사 제도화를 위한 쟁점 및 과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영선 의원은 "현재 육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Vision Camp에 전문 인력 및 전문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군사회복지사가 참여해야하며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되어 실시하고 있는 군사회복지사 제도가 우리 군에도 도

입이 된다면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8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현숙 박사는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군인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군에서는 모두가 직업군인인 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쟁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이홍윤 군사회복지사는 "군 사회복지사 제도의 입법화는 군의 새로운 희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였으며 "군사회복지사는 전투력 증강에 우선을 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제는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과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사탕발림으로 이루어진 공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